

여러분

가나자와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인정받은 후 2년째를 맞이하여 신년도에는 해외와 크래프트 교류를 가속화하고 국제 공헌에도 힘을 쏟아갈 생각입니다.

가나자와시는 작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베를린시, 볼로냐시, 겐트시의 협력을 얻어 ‘크리에이티브 왈츠’라는 명칭을 내걸고 젊은 공예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각 도시를 방문한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학생은 창의도시 담당자 및 그 지방의 작가 분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수준 높은 유럽의 예술 문화에 직접 접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체험을 레포트로 정리하여 3월 하순에 개최되는 가나자와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티브 왈츠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파견 대상자를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학생 외에도 가나자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및 가나자와 공예협회에서 추천 받은 젊은 공예가에게도 문을 넓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멤버 여러분께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올해는 창의도시로서 국제사회에도 공헌해 가기 위한 첫 시도로서 아시아 공예작가 등의 연수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염직물, 직조, 옷칠공예 등의 공예작가 등을 초청하여 1년 정도 가나자와의 공예기술을 배우게 하는 연수사업으로, 가나자와 미대 교원과 학생, 가나자와 공예가를 대상으로 모국의 공예에 관한 강연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가가 귀국한 후에는 가나자와 공예의 매력을 모국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작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상해시, 청두시, 이천시, 서울시가 새롭게 가맹되는 등 아시아의 창의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아시아 각국 정부와 지자체, 대학 등에서 가나자와시를 시찰하거나 조회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시는 앞으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맹도시로서 아시아 등의 타도시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창의도시 가나자와의 각 중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드림